



잔소리탈출연구소

③ 문해력 재미를 잡아라

윤선아 글, 김잔디 그림

2025년 12월 8일 출간 | 판형 152*210 | 148쪽 | 14,800원 | ISBN 979-11-6774-255-1 73810

분야 국내도서 > 어린이 > 어린이 교양 > 자기계발 / 국내도서 > 어린이 > 3-4학년 > 상식/교양

책 소개

유쾌한 동화와 명쾌한 정보로 하나하나 알아 가는 ‘문해력’

요즘 교육 문제의 핵심,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

요즘 교육 문제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누가 뭐래도 ‘문해력’이다. 어떤 과목이든, 어떤 분야든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걱정하며, 어떻게 해야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이런저런 해법들을 제시하기에 바쁘다. 책 대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고, 긴 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며, 심각한 어휘력 저하를 보이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단어를 설명하느라 정작 수업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다는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책 읽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지 백방으로 노력하는 양육자들까지, 문해력은 그 모두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제발 책 좀 읽어!”라는 말이 가장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 대표적인 잔소리이다.

『잔소리탈출연구소 ③ 문해력 재미를 잡아라』는 그런 모두에게 문해력 문제를 풀어줄 하나의 열쇠 같은 책이다. 이 책은 부족한 문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가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문해력이란 과연 어떤 능력인지,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알려준다. 더불어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학습 능력은 물론,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채워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능력인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 소개

글 윤선아

날말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국어사전에 들어가는 날말의 뜻을 풀이하고, 동화책 이야기를 만들어요. 4학년 때 여름방학 숙제가 독후감 40편 쓰기였는데, 그때부터 책을 가까이하게 되었어요. 일기는 3학년 때부터 썼는데, 지금도 시시콜콜한 속마음을 안네처럼 일기장에 털어놓고 있어요. 왕벚나무 아래 벤치에서 비밀 요원 리리를 만나면, 꿀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어린이들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동안 쓴 책으로 『잔소리탈출연구소 1 집중력 도둑을 잡아라』, 『람 선생님과 도토리 약국』, 『ㄱ이 사라졌다!』, 『ㄴ이 사라졌다!』, 『봉쥬 TV, 가짜 뉴스를 조심해!』, 『스마트폰이 사라진 날』 등이 있습니다.

그림 김잔디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고, 지금은 어린이책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들어 등장인물의 표정을 만들어 내고, 그림 곳곳에 깨알 같은 재미를 표현하는 일이 마냥 즐겁습니다. 그동안 그린 책으로 『매운맛 복수』, 『우리 학교에 마음 구조대가 떴다!』, 『파라쟁이 아니거든!』, 『까칠한 알바생과 세종 대왕을 도와라!』, 『더운 지구 뜨거운 지구 펄펄끓는 지구』, 『숙제 외계인 콕배기』 등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충격이었다. 아빠는 내가 절대로 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왜지? 새 학교에서 새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하면 하나쯤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새 학교에 갔다.

그런데 첫날부터 반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사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몰라서 교과서를 어디서 ‘사서’ 오나 궁금해하다니! 새 담임 선생님께도 그 말을 듣고 말았다. 문해력을 키우라고!

-p.24-25

“내가 또 뭘 틀린 거야? 휴,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동안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속상하고 괴로워.”

그러자 리리가 말했다.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건 중요하지.”

“왜?”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어떻게 알아내면 좋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

“알아낼 생각? 모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허허. 모르는 채로 가만히 있겠다고?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지.”

“리리! 그러니까 제발 도와줘. 너무 속상해서 독후감도 안 쓸 거라 그래 버렸다고!”

-p.80-81

정말 그랬다. 안네와 비슷하게 방에 틀어박혀서 엄마 아빠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나. 재훈이에게 계속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나. 문해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동안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나. 또 더 많은 책을 읽고 경험해 보고 싶어진 나! 예전에는 글이라는 걸 정말 읽기도 쓰기도 싫어했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내가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글을 쓰게 될지 스스로 기대되고 궁금했다.

-p.137

차례

프롤로그 제발 책 좀 읽어!

1 문해력이 뭐야?

-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 1 문해력이란?

2 문해력이 그렇게 중요해?

-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 2 문해력이 왜 중요하냐고?

3 읽는다는 건 즐거운 일

-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 3 일단 읽기! 읽기가 기본이야

4 좋은 책은 좋은 친구

-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 4 무엇보다도 책 읽기가 중요해!

5 국어사전은 보물 창고

-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 5 어휘는 힘이 세!

6 쓴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

-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 6 읽기 친구 쓰기, 쓰는 힘 키우기

7 약속을 지키자

-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 7 문법은 지켜야 할 약속

8 나를 만나자!

-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 8 글쓰기는 즐거워!

에필로그 드디어 받은 상장

작가의 말 문해력의 재미를 알아가는 멋진 친구들에게

출판사 서평

행복한 일상을 위한 어린이 생활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내 방 정리도 깔끔하게 해야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하는 건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가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 역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집중력’, ‘체력’, ‘문해력’, ‘경제력’, 그리고 ‘정리력’까지!

우리 아이들의 생활환경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풍경은 사라지고, 친구들과도 온라인에서만 만난다. 집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책을 읽는 시간도 점점 줄고,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힘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잔소리탈출연구소』 시리즈는 이런 요즘 아이들을 위한 생활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아이들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 역량들을 하나하나 뽑아 아이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상황을 흥미진진한 동화로 풀어냈다. 또 권마다 특별한 비밀 요원들이 등장해 왜 집중을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체력과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지, 용돈은 왜 항상 부족한지 같은 어린이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생활 능력이 부족한지, 그 힘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또한 동화와 함께 아이들이 키워 가야 할 생활력에 대한 정보, 생활력을 키울 수 있는 팁을 마련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잔소리탈출연구소』는 부모와 아이 모두를 잔소리에서 해방시키며,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책이다.

문해력 때문에 힘든 아이들을 향한 공감과 위로, 처음 읽는 문해력 성장 동화

그동안 출간된 ‘문해력’ 관련 도서는 많다. 교육자나 양육자에게 문해력의 개념이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 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는지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들이다.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문해력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하는 책들도 많다. 대부분은 ‘이 글을 읽어라, 읽고 문제를 풀어라, 이 단어를 외워라.’ 하는 학습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그런 책들 속에, 정작 책을 읽어내야 할 아이들의 어려움이나 속마음은 들어 있을까?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지시하며 다그치는 책들 때문에 또 한걸음 책과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닐까?

『잔소리탈출연구소 ③ 문해력 재미를 잡아라』는 그런 아쉬움과 걱정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문해력 문제를 온전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가며, 공감과 이해로 아이들을 품고 문해력을 성장시킨다.

주인공 모영문은 문해력 문제로 아빠에게 늘 잔소리를 듣고, 전학 첫날 부족한 어휘력으로 망신도 당한다. 하지만 잔소리탈출연구소의 비밀 요원 리리를 만나 신비한 리리에그를 선물로 받고 점차 문해력을 키우며 성장한다. 글 한 자 읽기 싫어하던 영문이가 스스로 실수를 바로 잡아가며 책을 선택해 읽고, 한 편의 독후감을 완성하는 이야기는 어려운 정의나 개념, 공부하고 외워야 할 문해력 대신 삶 속에서 친근한 문해력을 경험하게 한다. 그 과정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책 읽기와 글쓰기를 바라보게 다독인다. 영문이와 함께 리리에그의 메시지를 읽고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문해력을 ‘나에게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나도 키울 수 있는 힘, 나 스스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편안해지는 문해력 핵심 비법

이 책은 문해력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야기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 문해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

‘리리의 문해력 연구실’에 담긴 정보들은 문해력의 두 축인 독해력과 작문력, 읽기의 개념, 책을 고르는 방법, 책 읽기가 문해력의 핵심인 이유,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법, 문법이 중요한 이유,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법 등 문해력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주인공 영문이가 문해력 부족으로 갖가지 실수를 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문해력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기에 독자들은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문해력 성장의 과정이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깨달을 수 있다.

영문이의 문해력이 성장하는 이야기가 주는 재미와 감동에, 비밀 요원 리리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책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를 편안하게 실천하며 문해력을 기르도록 도와줄 것이다.

추천사

뇌과학자 정재승 강력 추천!

이 책에는 아이들이 따르게 될 좋은 습관들이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잔소리탈출연구소』는 잔소리를 줄이고, 대화를 늘려 주는 책으로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동시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 정재승(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정재승의 인간탐구보고서』 저자)